

- 에서 국익은 국제법이 지닌 구속력을 벗어날 수 있는 근거라고 보았다.
11. [출제의도] 종교에 대한 엘리아데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림의 강연자는 엘리아데이다. 엘리아데는 비종교적 인간의 일상생활에서도 종교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12. [출제의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윤리적 쟁점을 파악한다.
소전제 ㉠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인간에게 해악을 초래하는 기술이다.’이다. 이에 대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로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주장은 ㉠에 대한 반론의 근거가 될 수 있다.
13. [출제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을 파악한다.
칼럼에서는 통일이 되면 시민적 자유가 확대되고 평등이 실현되어 모두의 행복한 삶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14. [출제의도] 윤리적 육식에 대한 입장을 비교한다.
갑은 윤리적 육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갑과 을은 고통을 가중시키는 축산 방식은 비윤리적이라고 본다.
15. [출제의도] 사회계약에 대한 홉스, 로크, 루소의 입장을 비교한다.
(가)의 갑은 홉스, 을은 로크, 병은 루소이다. 홉스는 사회계약의 당사자와 주권자는 다르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ㄴ. 루소는 사회계약을 통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양도한다고 보았다.
16. [출제의도] 분배적 정의에 대한 롤스와 노직의 입장을 비교한다.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롤스와 노직은 절차적 정의의 입장에서 정의로운 절차를 거쳐 나온 분배 결과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ㄴ. 롤스는 무지의 베일을 쓴 사람들은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줄 일반적 사실들은 알고 있다고 보았다.
17. [출제의도] 문화 산업에 대한 아도르노의 입장을 이해한다.
제시문은 아도르노의 주장이다.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이 표준화된 상품을 통해 인간의 개성과 표현의 다양성을 위축시킨다고 보았다.
18. [출제의도] 요나스의 책임 윤리를 이해한다.
제시문은 요나스의 주장이다. 요나스는 공포의 발견술을 통해 불행에 대한 예측에 기반하여 윤리적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19. [출제의도]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와 싱어의 입장을 비교한다.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면 상대적으로 빈곤하더라도 더 이상 원조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ㄴ.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차등의 원칙은 해외 원조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20. [출제의도] 교정적 정의에 대한 베카리아와 칸트의 입장을 비교한다.
갑은 베카리아, 을은 칸트이다. 베카리아는 형벌을 통해 범죄 예방과 같은 사회적 선을 증진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칸트는 형벌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에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윤리와 사상 정답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해설

1. [출제의도] 벤담이 강조한 삶의 태도를 파악한다.
가상 대화의 스승은 벤담이다. 벤담은 이해 당사자들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를 승인하는 공리의 원리를 중시하였다.
2.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품성적 덕은 중용에 해당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천할 때 형성된다.
3. [출제의도] 제임스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제시문은 제임스의 주장이다. 제임스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지식과 신념이 가치를 갖는다고 보았다.
4. [출제의도] 장자와 맹자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갑은 장자, 을은 맹자이다.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만물의 평등함과 정신의 자유로움을 강조하였다. 맹자는 힘과 무력으로 다스리는 패도 정치가 아니라, 덕으로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중시하였다.
5. [출제의도] 혜능과 지눌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갑은 혜능, 을은 지눌이다. 혜능은 자신의 본성이 부처임을 제대로 본다면, 지식 공부나 점진적 수행을 거치지 않고도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을 수 있다고 [頓悟頓修] 보았다. 지눌은 단박에 진리를 깨친 뒤에도 습기를 소멸시켜 나가는 점수(漸修)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6. [출제의도] 목자와 갈통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갑은 목자, 을은 갈통이다. 목자는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이익을 나누어야 세상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갈통은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을 극복한 상태를 진정한 평화로 보았다.
7. [출제의도] 플라톤과 모어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갑은 플라톤, 을은 모어이다. 플라톤은 철인 통치 국가를, 모어는 유토피아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8. [출제의도] 스피노자와 사르트르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갑은 스피노자, 을은 사르트르이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신은 유일한 실체이며 자기 본성의 법칙에 의해서만 활동한다.
9. [출제의도] 석가모니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제시문은 석가모니의 주장이다.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因]과 조건[緣]에 의해 생겨나고 소멸한다는 연기설을 주장하였다. 또한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사성제로 설파하였다.
10. [출제의도] 밀과 칸트의 사상적 입장을 비교하여 이해한다.
갑은 밀, 을은 칸트이다. 밀은 질적 공리주의자로서 공리의 원리를 중시하였다. 칸트는 경향성에 따라 우연히 의무에 맞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11. [출제의도] 흄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그림의 강연자는 흄이다. 흄은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도덕의 근본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흄은 도덕적 행위와 판단에서 중요한 요인은 이성이라 아니라 감정이라고 주장하였다.
12. [출제의도] 동학과 위정척사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갑은 동학 사상가인 최시형, 을은 위정척사 사상가인 최익현이다. 최시형은 인간 존중과 인간 평등을 중시하였다. 최익현은 유교적 신분 질서의 유지를 주장하고 서양 문물의 수용을 거부하였다.
13. [출제의도]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적 입장을 비교하여 이해한다.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왕수인에 따르면 마음의 본체는 양지이며 양지는 천리이다. 또한 내 마음의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 치지(致知)이며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는 것이 격물(格物)이다.
14. [출제의도] 노자와 순자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갑은 노자, 을은 순자이다. 노자는 인위적 분별에서 벗어나 도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므로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15. [출제의도] 홉스, 로크, 루소의 사상적 입장을 비교하여 이해한다.
갑은 홉스, 을은 로크, 병은 루소이다. 홉스는 비참한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이 자신의 자연권을 양도하여 절대 권력을 수립한다고 보았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 합의를 통해 공동의 권력인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16. [출제의도] 세네카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갑은 스토아학과 사상가인 세네카, 을은 교부 철학을 대표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인간은 원죄로 인해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나며, 신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신의 은총을 통해 원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
17. [출제의도] 정약용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성(性)을 마음의 기호(嗜好)로 보았으며, 기호를 영지의 기호와 형구의 기호로 구분하였다.
[오답풀이] ㄴ. 정약용에 따르면 선을 좋아하는 기호는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天命之性]이며 인간이 악을 행하여도 소멸되지 않는다.
18. [출제의도]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갑은 수정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케인스, 을은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하이에크이다.
19.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사상적 입장을 비교하여 이해한다.
갑은 이황, 을은 이이이다. 이이에 따르면 칠정 외에 다른 정(情)은 없으며 사단은 칠정 중 선한 것만을 가리킨다. 따라서 칠정은 사단, 즉 인의예지의 실마리[端]를 모두 포함한다.
20. [출제의도] 프로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갑은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상대주의적 진리관을 대표하는 사상가이다.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보편적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